어떻게 그는 '기억력의 달인'이 되었나

'아인슈타인과 문워킹을' 조슈아 포어 지음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조슈아 포어는 기념일을 자주 깜빡하고 냉장고 문을 왜 열었는지, 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곧잘 잊어버리는 '평범한' 기억력의 남자였다. 그러나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을 취재하러 갔다가 누구나 기억력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지력선수'(MA·mental athletes)들의 말에 혹해 스스로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훈련을 시작한다.

어떻게 그는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되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책 '아인슈타인과 문워킹을'은 이처럼 포어가 1년간 기억력을 향상시켜 '기억력의 달인'이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담았다. 원제 'Moonwalking with Einstein'

'실낙원'을 통째로 외우고, 252자리 무작위 숫자를 간단히 외우는 스물네 살의 영국 청년 에드 쿡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시인 시모니데스가 발견했다는 기억술. 기원전 5세기 그리스 키오스의 시인 시모니데스가 발견한 이 기억법은, 기억할 내용을 재미있고 기발하고 외설스러운 이미지로 만들어 가상의 공간에 배치해놓고 떠올리는 방법이다.

'기억의 궁전'으로 불리는 이 방법으로 아테네의 정치가 테미스토클레스는 2만 명이나 되는 아테네 시민들의 이름을 외웠고, 15세기 이탈리아 법학자 라벤나의 피터는 기억의 궁전 1만 개를 지어, 판례 2만 건, 철학자의 격언과 수많은 고전을 외웠다고 한다.

긴 숫자를 외울 때는 PAO(사람-행동-대상, person-action-object)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00~99까지 모든 두 자리 숫자를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임의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34는 프랭크 시내트라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것, 13은 베컴이 공을 차는 것, 79는 슈퍼맨이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나는 것으로 나타낸 후 341379 같은 여섯 자리 숫자는 두 자리씩 끊어 시내트라가 망토를 발로 차는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이다.

물론 일개 범인(凡人)인 저자가 기억력 분야의 최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책은 참여저널리즘차원으로 실행한 '기억력 챔피언 되기' 체험담을 담았지만 탁탁한 과학보고서와는 달리 어렵고 지루하지 않다.

시작은 초라하지만 고수를 만나 비법을 전해 받고, 스펀지처럼 무공을 흡수해서 내공을 쌓은 후 경쟁자들과 벌이는 최후의 대결……. 흡사 무협지를 보듯 박진감있게 전개되는 포어의 모험담은 추리소설에 버금가는 흥미와 재미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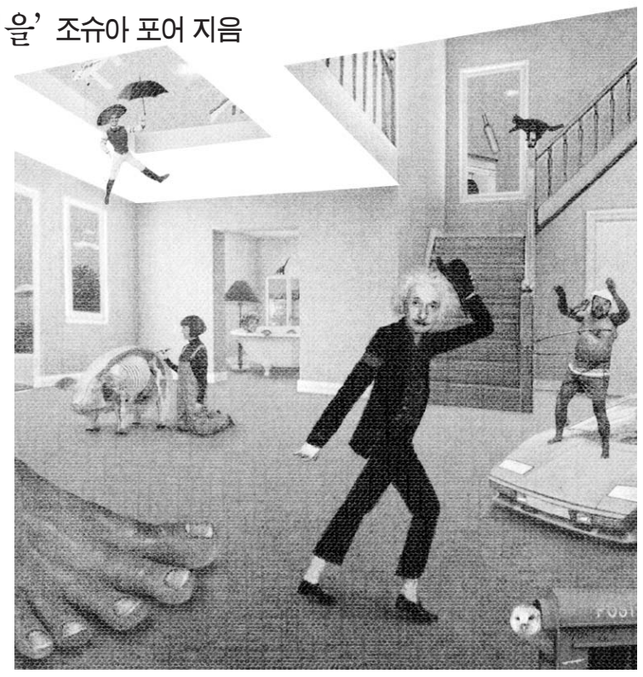
기억 훈련 과정과 별도로 진행되는 기억의 신비에 대한 탐구는 이 책의 또 다른 묘미다.

기억에 관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하나씩 풀기 위해 세계 메모리 챔피언십의 전설 벤 프리드모어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심각한 기억상실증 환자 'EP', 영화 '레인맨'의 실제 주인공 킴 피크, 자폐 천재 대니얼 태멋 등 기억과 기억력에 관련된 각 분야의 사람을 찾아 나서고, 기억의 역사와 문화·심리·과학 지식을 섭렵했다.

그 과정에서 '기억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창조되고, 저장되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력은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순·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삽화:웅진씽크빅 제공〉

고독을 견디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순된 삶

'나나'

서하진 지음

'착한 가족' '요트' 등 섬세한 필치로 가족과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뤄온 소설가 서하진(51·경희대 국문과 교수)씨가 이번엔 문제적 여성 팜므 파탈 이야기에 도전했다. 현대문학에 연재해 최근 펴낸 장편 '나나'다.

주인공 '나나'는 빼어난 미모와 함께 화려한 거짓말로 주변인을 자신의 욕망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악녀다. 주변인들은 그녀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눈빛이 그지없이 아름다운 까닭에 그저 경탄의 눈으로 보고 사로잡히고 만다. 그의 의붓오빠 '인영'마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나는 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 받고자 졸업장을 위조하고 영향력을 가진 두 남자를 회유한다.

소설의 내용이나 정황이 자연스레 '신정아 사건'을 떠올리게 한지만 작가는 "신정아 사건에서 일부 모티브를 따오긴 했지만, 신씨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작가는 이외에도 운명처럼 찾아온 새로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버리고 아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애란', 오랫동안 꿈꿔온 소설가의 길을 포기하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 가는 '정섭' 등 다양한 인물을 통해 현대인의 고독과 그것을 견디며 살아야하는 모순된 삶의 내면을 섬세하게 들여다본다.

서씨는 "가족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도 행복하거나 건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현대문학·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야기로 쉽게 풀어낸 노자의 '도덕경'

'못난이 老子'

송기원 지음

보성 출생으로 소설가이자 시인인 송기원(64)씨가 노자의 '도덕경'을 소설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책 '못난이 老子'를 펴냈다. 한때 5년간 '도'(道)를 찾아 계룡산과 히말라야를 헤맨 작가의 내공이 원동력이 됐다.

"나는 노자(老子)입니다. 내가 노자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고작 열아홉살밖에 안된 고등학교 3학년이 감히 노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어리둥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설정으로 시작되는 책은 대학 진학을 꿈도 못 꿀 정도로 공부와 담을 쌓은 '나'가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리로 노자에 빠져들어 '도덕경'을 살펴 본다는 이야기다.

81장에 이르는 원전 가운데 정치·경제 등 딱딱한 담론을 빼고 개인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 12개의 장과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꾸렸다. 또 장마다 도입부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 놓은 뒤 '못난이 노자'인 내가 생활 속 경험이나 친구 이야기 등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도교의 경전으로, 잠언집이나 인생지침서로 읽히기도 하지만 그 뜻이 쉽게 잡히지 않는 난해한 고전인 '도덕경'에 대한 주석이라 할 수 있는 책은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궁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숙제를 도와줄, 쉽고 재미있는 참고서로 읽혀진다.

저자는 "이 세상의 모든 못난이들이 '천하무적'이 되어 예수님, 부처님, 노자할아버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세상과 자기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녹색평론사·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합과 갈등으로 살펴본 한·일관계

'일본에 고함'

김종석 외 지음

KBS가 2010년 제작, 방송한 특별기획 역사다큐멘터리 '한국과 일본'의 내용을 책으로 담은 '일본에 고함'이 출간됐다.

국권 침탈 100년을 맞아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강제 병합이나 적대 관계에만 단편적으로 주목했던 기존 관점과는 달리 한·일 관계사를 화합과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광범위하게 살펴 호평을 받았다.

가장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과의 2000년에 걸친 관계사를 '인연', '적대', '공존', '변화', '대결'이란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았으며, 문화를 주고받던 이웃에서 국권을 강탈한 원수가 되기까지 소통과 대결의 역사를 걸어온 한국과 일본을 재조명했다.

지금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일 관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역사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루·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망 진단부터 시신 보존방식까지

'거의 모든 죽음의 역사'

메라리 킹 지음

두렵기도 하지만, 궁금하기도 한 '죽음'에 대해 다룬 책 '거의 모든 죽음의 역사'가 나왔다.

영국에서 전업작가로 활동중인 메라리 킹이 쓴 이 책은 사망 진단에서부터 매장과 장례, 추모문화, 시신 보존 방식에 이르기까지 죽음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윤리와 경제, 종교, 법률,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는 죽음을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낸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라가 한때 특효 약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 시신을 먹는 풍습이 단순히 식인 행위가 아니라 고인에 대한 일종의 애틋함의 표현이기도 했다는 사실, 사후 섣불리 입관이나 매장된 탓에 행여 고인이 관속에서 깨어날까 무덤이나 시체 안치소를 지키던 관리인의 이야기 등 흥미로운 주제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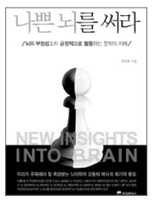
〈사람의무늬·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쁜 뇌' 이면에 숨어 있는 긍정성을 일깨운다

'나쁜 뇌를 써라'

강동화 지음



모든 사물이 양면성을 지니듯, 우리 뇌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뇌의학자 강동화(울산의대 신경과 부교수) 박사가 쓴 '나쁜 뇌를 써라'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이른바 '나쁜 뇌'에 주목한다. 산만함, 자기합리화, 기억의 왜곡, 나쁜 기억력, 냉정함, 중독, 뇌 질환 등이 이 책에서 다루는 '나쁜 뇌'의 예다.

신경외과의사로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를 만나온 저자는 '행복한 뇌졸중 환자'즉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놓은 심각한 장애에도 우울증을 앓기는커녕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환자가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는 저자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나쁜 뇌는 삶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저자는 이를 증명하는데 멈추지 않고 이에 덧붙여 뇌의 부정적인 작용, 즉 '나쁜 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전한다.

가령 대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자기합리화의 경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낭비적 삶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한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뇌의 부정성조차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뜻밖의 지혜를 선사한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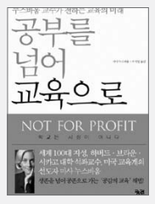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대한유사=박영수 테마역사문화연구원장이 우리민족에게 있어 격변의 시기였던 19세기 말엽을 민속사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매국노를 야단친 하녀부터 국채를 갚으려고 담뱃값을 모은 서민들까지 민초들의 이야기로 구한말 한국사회를 복원한다. 근현대사의 풍속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 이야기'를 넣어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근현대사를 살필 수 있게 했다. 〈살림Friends·1만2000원〉

▲늪세상=지난해 '뉴요커'가 선정한 '40세 이하 소설가 20인'에 뽑힌 미국 작가 캐런 러셀의 첫 장편 소설.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판타지 이야기가 펼쳐진다. 빅트리 가족은 플로리다 늪지대의 한 섬에서 각종 파충류를 키우며 테마파크 '늪세상'을 운영한다. 하지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늪세상은 몰락한다. 오빠와 아버지도 떠나고 섬에는 유령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언니 오시올라와 막내 에바만 남는다……. 〈21세기북스·1만3500원〉

▲책벌레들의 우상 게코스키의 독서 편력='독서회고록'이란 용어를 만든 학자이자 서적상인 릭 게코스키가 4살 때부터 장성한 아들과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60대까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친 사적인 독서 목록을 정리했다. '호밀밭의 파수꾼'과 '황무지' 같은 고전은 물론 동화, 탐정소설, 의학서 등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책들을 소개한다. 책과 인생을 같이 한 저자의 삶과 인생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뮤진트리·1만6000원〉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독일의 저널리스트 빌프리트 봄머트가 언뜻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인 식량 위기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펼쳐보이며 경각심을 일깨운다. 인류의 식량확보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분석했다. 식량 위기의 원인과 현상, 전망까지를 보여주는 식량 문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알마·1만5000원〉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공감의 교육'을 주창하는 누스바움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성장주의를 따르는 전 세계 교육정책이 당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교육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되묻는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의 밀착된 대화는 오늘의 교육이 인문교양 교육에서 부활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수법이며, 이를 위해 철학 수업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궁리·1만5000원〉

▲고의는 아니지만='위저드 베이커리'로 제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받은 작가 구병모(35)의 첫 소설집. 2009년 등단 이후 2년간 각종 지면에 발표한 단편소설 5편과 신작 2편을 묶었다. '아가미' 등 작가의 전작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독특한 상상력과 매력적인 서사, 현실과 환상성을 절묘하게 배합해내는 작가 특유의 화법을 압축적으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자음과모음·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

▲신기한 사과나무='욕심만 안 부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과'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유혹, 갈등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곱고 맑은 심성을 가진 칠성골 사람들에게 불쑥 나타난 신기한 능금동자와 사과나무. 더불어 사는 삶과 맑은 심정을 지키는 법을 일깨워주는 잔잔한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시공주니어·1만원〉

▲국경일은 어떤 날일까요?=우리나라에 어떤 국경일이 있는지, 국경일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설명했다. 아이들에게 국경일이 언제인지, 왜 이 날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대표적 종교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소개하면서 기념일의 의미도 살펴본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나와 그 녀석의 마지막 경주=일본작가 사사키 히토미의 제20회 무쿠하토주 아동문학상 수상작. 친할아버지 같던 이웃 할아버지의 죽음을 겪어내는 과정을 따듯하게 그렸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 풍경은 이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우리교육·8800원〉

▲세계 명문가의 공부 습관=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 찰스 다윈, 퀴리 부인 등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낸 명문가의 공부 비법을 알려준다. 이들 명문가 공신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주도형 공부의 달인이라는 점. 유명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도했지 만 혼자 힘으로 스스로 공부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공부 습관과 그 실천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스콜라·1만원〉

▲마음대로 그려봐=화가이자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희씨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노하우를 담았다. 연필, 붓, 종이, 캔버스, 물감 등 그림 재료부터 그림 소재와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림 그리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휴먼어린이·1만4000원〉